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1만명 대공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 성황리에 진행

【평양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 배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영광년 천 70년사의 메아리인 양로동당 만세, 일심단결 만세, 사회주의 세대의 우렁찬 함성이 10월의 하늘기에 높이 울려 퍼지는 속에 11일 수도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1만명 대공연에 충분한 만수대에 출단, 보천문연에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평양의 선경인 대동강 한복판에 주체사상과를 배경으로 설치된 대형수상무대는 조선로동당기와 『70』이라는 글씨, 화려하고 특색있는 조명들, 대형전광판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무대 뒷면 전광판에 내 조국의 자랑인 선군 12경이 펼쳐지고 춤추는 분수가 오색평통한 불빛 속에 활동경을 수놓은 대동강의 밤 풍치는 더욱 아름다웠다.

김일성광장 앞의 대동강 만수대는 배두산악이 굽어보는 혁명의 전구들, 강성국가건설의 전역들마다에서 선군조선의 영웅적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어머니당에 드리는 충정의 로맨틱선물을 마련한 궁지드높이 면발을 경축하는 수민명의 각계층 근로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네대와 세기를 이어 천만심장은 울린 위대한 어머니의 노래, 로동당시대를 격동시킨 기념비적명작들로 주체음악사에 류례없는 경축의 무대를 펼치게 될 공연장은 무한한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고 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맞으며 사회주의 조국에 온 새 일본 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 동포 축하단, 대표단, 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공연을 보았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한 고있는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주조외교 및 국제기구대 표부부, 무관부부들과 대사관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대공연에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70년력사와 더불어 주체에 술의 개화발전에 공헌한 만수대에 출단, 보천문연에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평양의 선경인 대동강 한복판에 주체사상과를 배경으로 설치된 대형수

상무대는 조선로동당의 영광찬란한 행로를 간명 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놓았다.

역사상 처음으로 성스러운 붉은 당기록에 근로인민대중의 모습을 새겨주시고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주체의 당기록을 배송의 상징으로 높이 휘날려 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보는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젖어들었다.

우리 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께는 신뢰, 충정의 일편단심이 넓은 명곡들로 그리움의 바다, 추억의 바다를 이룬 무대에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의 날대, 당의 명도밀에 20세기 문예부흥으로 꽂아먼지었던 영광의 시대를 진古今로 『태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수령님 은덕 일세』,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를 비롯한 노래들이 울렸다.

혁명행도의 첫 시기부터 문학예술이 당시의 찬가, 충정의 송가를 염기로 위대한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전인민적사상감정을 환희롭게 터치며 서장 『영광과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가 첫 무대를 장식 하였다.

출연자들은 우리 당의 명예와 주체음악에 걸이 및 날 명작들인 남성독창과 합창 『동지애의 노래』, 판현악과 합창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 『장군님 따라 쌔우는 길에』, 무용 『눈이 내린다』, 아동합창 『소년단행진곡』, 합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판현악과 노래련무 『천리마대』, 『장군의 노래』, 『수령님 바라시는 오직 한길에』, 『당의 기치따라』, 너성독창과 합창 『전인민 적 속 가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등등의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은 동지에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장엄한 탄생의 고고성을 울린 뒤로부터 수십성상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따라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조선로동당의 영광찬란한 행로를 간명 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놓았다.

자제로운 어버이의 물속에서 명가수들로 자리난 보천보전자악단 예술인들이 『친근한 이름』, 『사랑의 미소』, 『생이란 무엇인가』, 『나를 부르는 소리』, 『구름이며 그리운 장군별님께』, 『그 품을 못 잊어』, 『회파람』, 『지새지 말아오 평양의 밤이』, 『강성부흥아리랑』, 『사회주의 지키세』, 『내 나라 제일로 좋이』 등으로 동당시대의 명곡들을 암고 춤연하자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출연자들은 독창적인 음악정치로 선군혁명의 승전고를 높이 울리며 새기적변혁과 눈부신 번영을 이루어온 우리 당 명도의 위대성과 풍만한 서정과 정열, 물不通은 항만이 차넘치는 황홀한 음악세계로 잘 보여주었다.

공연문위기는 고조되고 축포가 려져오르는 가운데 시대의 명작들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밟아온 창작가들에 대한 소개부대가 펼쳐졌다.

창작가 한사람 한사람을 천만품을 들여 기워주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스승의 뜨거운 사랑과 정을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어 그들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는 만사람의 심금을 새차게 울려올렸다.

최후승리의 래일이 바라보이는 10월의 명마루에서 당의 노래를 공지높이 부르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에 넘쳐 황재산에 술단 예술인들도 『정일봉의 우희소리』, 『조선의 행운』, 『장군님 배마라고 달리신다』, 『그이만을 생각하네』, 『태양의 위성이 되자』, 『효성은 조선의 가풍』, 『하얀 서리꽃』, 『해당화의 마음을 단의 노래들과 현대 무용 『매전을 단송에』, 『류총』, 타프총 『록해 광군총』으로 대공연무대를 이채롭게 해주었다.

주체예술의 전성기를 열어 놓은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에 터여나 우리 식 전자음악의 빛나는 새 역사를 펼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고마운 우리 당의 모습으로 가슴 찢릿이 안겨왔다.

신군으로 존엄높고 일심단결로 위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펼쳐며 악동하는 젊음으로 세계에 솟아오르는 내 조국의 억센 기상, 수령복, 당복이 꽂아나는 사회주의학원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기쁨이 트럼베트 독주와 무용 『너를 보며 생각하네』, 너성 5중창 『애일을 믿으려』, 『사랑하자 나의 조국』에 차넘쳤다.

천만군인이 목소리 합쳐 부르는 신장의 노래,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파를 위대한 인민의 불타는 충정이 뜨겁게 분출된 너성중창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는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력사를 가장 아름답게 맹세하는 원수님 따라 끌까지 가고 각 충정의 한길에서 사상의 기수가 되고 혁명의 척후대, 전군의 나팔수를 펼친 세계 예술인들의 불타는 맹세와 함께 울려퍼진 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대공연의 마감을 의의하게 장식하였다.

평양의 아름다운 밤이 지새도록 경축의 춤물결, 노래바다를 펼친 대공연은 종장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가리라 백두산으로』로 막을 내렸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은 영원히 길승불패이라는 철

리를 대서사시적회복으로, 강장 『모란봉』, 거야금 2중주와 병창 『여나다 만풀과』, 너성민요재창 『칠명이래 사파바다』, 판현악과 합창과 무용 『창산벌에 풍년이 있네』, 너성 5중창 『돌파하라 최첨단』을 펼친 대공연은 21세기 문학에 출현명의 포상을 높이 올리며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주동하는 주체예술의 위력을 힘 있게 표시하였다.

백두의 갈비탕에 뜻을 달고 단숨에

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불폐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同志를 속에 숨기고 새 세기의 터양, 찬란한 승리의 기치로 우러러 천만심장이 터쳐울린 혁명송과, 철세의 위인찬가가 하늘땅을 진감시켰다.

우리 당의 70돐역사를 빛내이며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혁명을 보위해 온 전세대 예술인들처럼 눈부신 춤과 풍물, 유풍과 대동교에서 쓸어지는 불꽃포, 춤추는 분수가 뿐이었는 하얀 물보라 등 대동강의 회한한 절경은 어머니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해 멀친 행복의 선정이었다.

장례 한 축포성과 함께 오색찬란한 불꽃들로 천재만상을 이룬 불야경을 경란속에 비라보면서 판중들은 헤빛 같은 얼과 정으로 인민의 모든 꿈과 희망을 끓어올리는 하얀 물보라 등 대동강에 넘쳐있었다.

수도의 밤하늘을 환희롭게 장식한 10월의 축포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무궁창창한 미래를 기약하는 불보라였으며 백두산을 넘겨온 춤과 풍물, 유풍과 대동교에서 비라보면서 판중들은 헤빛 같은 얼과 정으로 인민의 모든 꿈과 희망을 끓어올리는 하얀 물보라 등 대동강에 넘쳐있었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가장 경사스러운 혁명적명절로 뚜겁게 경축한 환희로운 대공연은 백두산점세워인들을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떠는 어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평도파리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힘 있게 고무주동할 것이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경축 1만명 대공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은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계속 진행된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공연

공화국가 합창단과 모찬봉 악단의 합동 공연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광장의 높은 연단에 모시고 원수님의 역사적인 연설을 밤이안은 온 나라 천만군민은 지금 커다란 영광과 기쁨, 환희에 넘쳐 10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공화국가 합창

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이 11일 류경 정주경제육관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빅사상 쇄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체를 멀치시고 헌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과의 정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에 아름다운 꿈과 미래상을 실현해 갈 관람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끝이 끝이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동해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진동지, 팍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형래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 태종수동지와 김영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대표들, 당, 무역, 청원기판,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군·군,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항장기수들, 공로자들,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보았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류운산동지,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회 위원회 주 tịch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쌀바드로 안포니오 발데스 메이트지와 편지 포씨 카마우스킨 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조직위원회 위원장, 하티 키에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대중운동부부장과 여러 나라 대표단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부, 무관부부들과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인민위원회의 한승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인민의 힘과 슬기로 조선의 존엄과 영광을 누리며 멀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남성 3중창과 합창 『조선로동당창건』, 남성 3중창과 『조선의 전군가』, 『조선의 모』 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선군의 기치높이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며 조선을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위용떨치게 한 우리 당의 빛나는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포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안겨주신 영원한 혁명의 노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거리라 배우산으로』가 힘차게 울려져졌다.

온라인 3중창과 남성 3중창 『여미니생일』, 남성 3중창 『빛나라 태양의 그 이름』으로 시작된 공연에서 출

연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명도밑에 가장 존엄높은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어온 우리 당, 인민의 마음속에 청정한 어머니로 새겨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숨엄한 음악세계로 열렬히 칭송하였다.

존엄한 혁명의 길에 오직 인민을 밀고

자주, 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거창한 전변의 힘과 힘으로 고개를 끊고 위대한 승리만을 안아온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정이 가슴가득 차오르게 하는 모란봉악단의 경음악과 노래연주 『조선로동당 만세』, 공화국가합창단의 남성동창과 합창 『당을 노래하노라』 등의 종목들이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장내에 울려져졌다.

인민위원회의 한승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인민의 힘과 슬기로 조선의 존엄과 영광을 누리며 멀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남성 3중창과 합창 『조선로동당창건』, 남성 3중창과 『조선의 전군가』, 『조선의 모』 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선군의 기치높이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며 조선을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위용떨치게 한 우리 당의 빛나는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업의 최

후승리를 향하여 폭포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

대와 인민에게 안겨주신 영원한 혁명의 노

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거리라 배우산으로』가 힘차게 울려져졌다.

온라인 3중창과 남성 3중창 『여미니생일』, 남성 3중창 『빛나라 태양의 그 이름』으로 시작된 공연에서 출

연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명도밑에 가장 존엄높은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어온 우리 당, 인민의 마음속에 청정한 어머니로 새겨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숨엄한 음악세계로 열렬히 칭송하였다.

존엄한 혁명의 길에 오직 인민을 밀고

자주, 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거창한 전변의 힘과 힘으로 고개를 끊고 위대한 승리만을 안

아온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정

이 가슴가득 차오르게 하는 모란봉악단의 경음악과 노래연주 『조선로동당 만세』, 공화국가합창단의 남성동창과 합창 『당을 노래하노라』 등의 종목들이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장내에 울려져졌다.

인민위원회의 한승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인민의 힘과 슬기로 조선의 존엄과 영광을

누리며 멀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구

가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남성 3중창과 합창 『조선로동당창건』, 남성 3중창과 『조선의 전군가』, 『조선의 모』 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선군의 기치높이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며 조선을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위용떨치게 한 우리 당의 빛나는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업의 최

후승리를 향하여 폭포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

대와 인민에게 안겨주신 영원한 혁명의 노

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거리라 배우산으로』가 힘차게 울려져졌다.

온라인 3중창과 남성 3중창 『여미니생일』, 남성 3중창 『빛나라 태양의 그 이름』으로 시작된 공연에서 출

연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명도밑에 가장 존엄높은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어온 우리 당, 인민의 마음속에

청정한 어머니로 새겨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숨엄한 음악세계로 열렬히 칭송하였다.

존엄한 혁명의 길에 오직 인민을 밀고

자주, 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거창한

전변의 힘과 힘으로 고개를 끊고 위대한 승리

만을 안아온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정

이 가슴가득 차오르게 하는 모란봉악단의 경음악과 노래연주 『조선로동당 만세』, 공화국가합창단의 남성동창과 합창 『당을 노래하노라』 등의 종목들이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장내에 울려져졌다.

인민위원회의 한승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인민의 힘과 슬기로 조선의 존엄과 영광을

누리며 멀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구

가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남성 3중창과 합창 『우리의 김정은동지』, 남성 3중창과 『우리의 김정일동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

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가

들, 청년들과 인민들의 심장속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이는 무대배경에 언제나 인민을 당의 둑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로 내세우시며 인민의 민복을 풀피우기 위해 무한대의 사랑과 열정을 바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성이 모셔지자 장내에서는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올랐다.

녀성중창 『우리의 김정은동지』, 녀성중창 『운명의 손길』, 기악과 노래 『사랑하노라』는 회색의 춤출위인을 선군혁명의 걸출한 명도자로, 운명의 태양으로 하늘땅 끝까지 밟아보려는 전인민적사상가정을 훌륭히 형상화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로 울려져졌다.

인민위원회의 한승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인민의 힘과 슬기로 조선의 존엄과 영광을

누리며 멀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구

가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남성 3중창과 합창 『우리의 김정은동지』, 남성 3중창과 『우리의 김정일동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

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가

들, 청년들과 인민들의 심장속

추동할것이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공연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몽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알당겨나가는 청년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들과 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공연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따라 광명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

확정적이라는 철리를 관람자들의 심장에

새겨주었다.

우리 식의 경음악과 판현악, 다양한 성악

종목들의 배합으로 세로운 경지의 음악형

상을 창조한 춤연자들에게 관람자들은 아

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왔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공연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몽쳐 혁명의 최

후승리를 알당겨나가는 청년 당원들과 인

민군장병들, 청년들과 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온라인 3중창과 남성 3중창과 『우리의 김정은동지』, 남성 3중창과 『우리의 김정일동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

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가

들, 청년들과 인민들의 심장속

추동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공연

70돐 경축 공

우리 당의 백승의 력사를 펼쳐주신 절세위인들께 최대의 영광을!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에서

10월의 감격과 환희 불멸의 꽃바다에 끌없이 파도친다

내 나라의 창봉에 높이 날리는 조선로동당의붉은 당기를 숭高地 우러르며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겨온 스승스러운 70년을 감회깊이 들이켜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감격과 환희가 10월의 하루하루를 뜨겁게 달군다.

우리는 이것을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충정의 열도와 세계 전보적인 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그대로 일어나고 끝이 되어 환희의 꽃축이 펼쳐져있었다.

최고사령관기와 조선로동당의붉은 기발을 불멸의 꽃으로 푸넓게 형상한 화폭의 중심에 만발하게 피어난 태양의 꽃속에 계시며 환희의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보시고 『영광드리자 어머니』는 글발을 두드려지게 새긴 전시회에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인민무역부 장병들과 인민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세차게 맹약하고 있다.

불멸의 꽃으로 형상한 대형 꽃바구니의 땅기에 새겨진 천만군민의 신념의 글발 『위대한 김일성同志과 김정일同志』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

조선 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일군의 안내를 받으면 전시회장의 중앙전시회장에 들어선 우리의 눈앞에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창조자, 당정책 환절의 척후대로서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이 이 하늘아

때, 이 땅에 기어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야말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복록을 깔는 충정의 세계를 애인보게 하는 인민무역부와 외무성전시대가 펼쳐져있었다.

최고사령관기와 조선로동당의붉은 기발을 불멸의 꽃으로 푸넓게 형상한 화폭의 중심에 만발하게 피어난 태양의 꽃속에 계시며 환희의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보시고 『영광드리자 어머니』는 글발을 두드려지게 새긴 전시회의 주제로부터 총령도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것들 어 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적작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힘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에 도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일은 신념과 의지가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게 형상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전시회의 상장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한 번 합 없는 충정의 마음으로 수령님들을 헌세만세 높이 물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앞당겨갈 천만군인의 불리는 태양의 꽃을 헌신해주시면서 결을 풀수가 없었다.

참관자들과 함께 2층으로 오르며 우리는 통행한 일군으로부터 이번 전시회에 깃든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시대에서는

적들의 도발책동으로 이 땅에 조선된 입죽족벌의 긴장한 정세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 이끄면서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준비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

시고 전시회의 주제로부터 총령도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것들 어 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적작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힘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에 도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일은 신념과 의지가 조

형예술적으로 완벽하게 형상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전시회의 상장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으로 허름히 형상화되었던 것이다.

탁탁하고 세련된 레도로 빛나는 승리의 낸대만을 아로새겨온 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전시회의 상장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한 번 합 없는 충정의 마음으로 수령님들을 헌세만세 높이 물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앞당겨갈 천만군인의 불리는 태양의 꽃을 헌신해주시면서 결을 풀수가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밀에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부터 이번 전시회에 깃든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시대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을 품 있게 구가한 경기도국전시대…

총련 중앙상임위원회전시대에 활짝 피어난 불멸의 꽃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인가.

이 역의 광풍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 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제 진보적인 민들의 뜨거운 지성과 조선로동당에 대한 칭송의

마음이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보며 참관자들은 위대한

청년전위들의 군은 신념과 의지

를 이어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들의 발걸음을 끌없이 풀어당기었다.

끓어오르는 격정속에 전시회장을 다시 둘러보는 우리의 가슴속에서 이런 웨침이 절로 머물렀다.

내 조국의 뜻깊은 10월에 펼쳐진 태양의 꽃바다, 진정이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의 자랑한 70년역사를 수놓아오신 철세위인들께 드리는 최대의 영광이며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의 앞길에 끌없는 번영만이 새겨질것이라는 것을 소리높이 전하는 불멸의 화폭이다.

참으로 전시대들마다 조선로동당의 배경백승의 강철의 당시에 펼쳐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대체로, 김성기수를 모시고 700여상의 불멸의 꽃으로 허름한 뜻깊은 화폭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외교단사업총국전시대에서도 걸음을 멈추었다. 위대한 수령님들파 경애하는 원수님을 끌없이 흠토하는 세

세계적인 민들의 뜨거운 지성과 조선로동당에 대한 칭송의

마음이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보며 참관자들은 위대한

청년전위들의 군은 신념과 의지

를 이어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

이어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는 원수님의 군대와 일정대에 나온여서 활호하는 군단과 일정대에 오자마자 어려워있는 불멸의 꽃들을 풀까지 보여주는 조선인민군 김성